

기고

안전한 우리 집을 위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은 집이다. 하루의 끝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는 집이 반드시 안전한 공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전남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26,240건 중 주택화재는 5,179건으로 약 19.7%를 차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194명 중 120명(약 61.9%)이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 발생 비율에 비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재인한 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택화재의 피해가 큰 이유는 초기 대응의 어려움 때문이다. 아파트와 달리 많은 주택에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는 순식간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고,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다. 특히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일수록 더욱 중요하다. 작은 화재라도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고, 설치방법도 간단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크다. 단 몇 분의 대비가 한 가정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지금, 우리 집에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일 수 있다. 안전은 거창한 준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소화기와 감지기, 이 작은 준비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조대성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칭찬이라는 말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칭찬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비타민이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인간관계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온화하게 해주는 물론 그 넓이를 한없이 넓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 기폭제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다. 그래서 칭찬은 좋은 것이다. 생각해 보라. 누구든지 칭찬을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가.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칭찬은 행복을 꽃피우는 비타민

는 사물을 써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승승계임보다는 자신만이 모든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오히려 험담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인간 세상이다. 험담이 인간 세상의 독소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모로코 속담에도 험담은 최소한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그 첫 번째는 물론 험담을 말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험담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험담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이처럼 험담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험담은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난

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는 곧 우리 주변을 청량감보다는 혼탁함이 감도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소시민들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을 비롯한 소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심하다.

그들은 이 순간에도 공존보다는 유아 독존만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 직설적으로는 물론 칭찬을 가장한 속임수가 들어있는 거짓 칭찬, 사방팔방 칭찬, 실속 없는 칭찬, 의미 없는 칭찬 그리고 금방 뒤돌아서면서 욕을 해대는 칭찬도 마다하지 않는다. 권력이 있을 때는 갖은 아부를 다해가며 칭찬을 하다가도

그 힘이 사라지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정치 모리배 및 장사치들.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훌륭한 프로젝트를 고안해 낸 사람도 어둠의 뒷골목으로 몰아가 버리는 사람들. 성황리에 치러지는 남의 잔치를 애써 폄하해야만 가슴이 편안해지는 족속들. 극한적인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넘나들지 못하도록 아류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안간힘을 써대는 일부 몰지각한 몰신주의자들. 이런 쓰레기 같은 부류들이 우리 사회에 엄존하고 있기에 칭찬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으로 애제고 통제다.

오물투성이 사회에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회로 변모해 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칭찬을 생활화해야 한다. 칭찬은 구체적이고 간결해야 한다. 사소한 것부터 칭찬해 주도록 하자.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인간관계를 폭넓게 해야 하는데 그 한 가운데 바로 칭찬이 따리를 들고 있는 것이다. 비판마저도 칭찬처럼 하라고 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술과 심리 전술로 무장한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 피싱은 젊은 사람이 알고도 당할 정도로 날로 진화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은 갈수록 능숙·조직화되고 있어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란 쉽지 않다.

특히 검찰청이나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비밀비재하다.

보이스 피싱범죄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다

진화하는 수법 중, 하나로 최근에는 기술로 승부를 겨루는 경우도 있다.

스팸문자나 택배배달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범죄조직에 전송되고 특정은행이나 검찰청 이름으로 전화 오게 하는 수법을 쓴다.

이때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전화 하면 자신의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사기범이 전화를 받아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면 대책 없이 속게 된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행해지는 속성상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과 연계돼 있어 우리 사법기관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갈수록 단속도 어려워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피하려면 정부 기관을 사

침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전화, 문자 대졸 권유는 일단 무시하는게 상책이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 등 정부 어느 부처도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나, 그리고 내 가족 역시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가급적 받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통화를 끊은 뒤 자녀나 주변 사람, 또는 경찰에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김광중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경감

오늘의 운세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음력 1월 18일)

Grid of 12 daily fortune predictions with zodiac icons and text. Includes predictions for 48-year-olds, 49-year-olds, 50-year-olds, 51-year-olds, 52-year-olds, 53-year-olds, 54-year-olds, 55-year-olds, 56-year-olds, 57-year-olds, 58-year-olds, and 59-year-olds.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email address (gwangmae5678@hanmail.net).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